

III. 한국 언론관의 생태

○언론의 생태 구성적 관점

언어는 단순한 의미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에서 구성한 양식과 의미를 함축하는 생명을 가지며 일정한 순환 주기를 가진다. 언어는 인간과 사회에 따라 일정한 구성 가능성 즉 생태 구성 가능성을 함축한다. 언어는 사회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실천의 반영인 동시에 이상적 가치이기도 하다.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통하여 당시 사회의 가치, 이념, 철학적 인식의 구성을 판독하는 것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언어의 사회 문화적 생태를 통하여 지칭하는 상징성을 읽을 수 있다. 당대의 양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전후의 시대 지속을 통하여 생성 변용 사멸 발생 등 인간의 문화 생활을 통하여 인지 구성을 복구 음미 검토함으로써 동질성의 규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 차용하는 생태 구성성은 동양적 심성관에 착안한 발상이다. 사회문화적 상대성과 인간의 삶 그 자체를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활동의 투영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언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투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필자는 이미 방송을 비롯한 매체 문화 현상 연구에서 “방송”, “사회” “문화”, “언론” 등의 개념이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정에 따라 변환해온 인식상(認識相)을 형성함을 현상중심으로 접근하여 개념론을 전개한 바 있다. 하나의 개념은 일정한 사회에서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구성 즉 생태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문화적 상대성과 함께 인간 삶의 상대적 고유성을 인정함으로써 구조 기능론, 역사론, 서구적 생태론이 유발하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는 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해석함으로써 역사가나 힘있는 자가 구성하는 이야기로 될 수밖에 없다. 구조 기능론은 사회문화적 인간적 상대성을 등한시하는데 문제가 된다. 서구적 생태론은 반자연적 문화관에 입각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로서의 개념을 판독해본다는(reading) 것은 한편으로는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평면적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휘가 사회문화의 여건에 따라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의미의 함축성을 가지는가를 해석 추정해보는 일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립된 어휘(개념)의 완전한 의미 재구성 즉 재현(representation)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삶의 조건을 검토하는 맥락 위에 뒹으로써 적어도 개인이나 사회가 지향한 인식의 추이와 통제 양식을 상당한 수준까지 판별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언급한 “방송”개념이나 “신문”, “언론” “공중(public)” “문화” “사회” 역시 이러한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의 개화기에 문화나 사회가 오늘날처럼 정착한 인식의 틀을 확립한 것은 결코 아니며 공중 역시 그러하다. 유길준의 <신문국 장정>이나 개화기의 문헌에서는 아직 오늘날과 같은 신문관이 사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그래서 “신문공보” 또는 “신문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본다면 사회에서 진행되는 인간 활동의 고유한 인식상(認識相)을 그대로 판독한다는 것은 중요한 시도이며 접근하고자 하는 당시의 기준에 의하여 의미의 범주를 설정하거나 단정하는 시도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언론”의 경우도 그 용례(用例)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태에 따른 의미 구성을 해보면 언어적 함축성의 범주를 조작 정의하고(operational definition) 현재의 입장 중심으로 과거를 단정짓는 경험론적 시도가 한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언론”이라는 말이 근대

신문이 들어오면서 생성된 개념이 아니다. 다수 학자의 접근처럼 조선시대의 대간제에서도 “언론”의 개념은 차용되어 왔다.(목정균) (김경수) 중국의 한자 고문헌에서부터 이미 언론이라는 개념은 차용되어 온 자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자학, 불교, 뿐 아니라 조선 시대의 많은 문헌에서 이미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미 다양하게 연구가 시도되었다.(박기성, 2000) 그렇다면 이러한 언론 개념과 오늘날의 그것을 어떻게 연관짓거나 구분 지어 해석할 것인가는 한국의 언론 현상의 체계화에도 중요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나열하여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규정해온 언론의 의미를 중심으로 세 가지 언론관으로 계보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구적 근대 언론에 인식의 발상을 둔 외래적 모더니즘에 착안한 언론의 입장이다. 이러한 연구자에 의하면 한국에서 고유한 언론은 없고 근대화와 함께 서양의 신문 잡지를 비롯한 방송 등의 대중매체가 언론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개화기 이후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대중매체 현상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특성이다. 절대 다수의 언론 학자가 이러한 입장에 선다. 이러한 관점을 결정적으로 제공해준 계기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규정한 언론 개념 정의 이후의 현상에서 결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언론기본법 제 5조 1항(정의)에서 “언론이라 함은 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들이 지칭하는 특성은 한국의 언론은 대중매체 중심의 활동으로 보며 한국의 토착적 언론을 서양적 대중매체의 관점으로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언론을 제4부 또는 감시견 등의 기능 중심으로 접근한다. 공중이 행하는 구어(口語) 또는 언어 중심의 표현인 자유 언론(free speech)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둘째는 서양적 언론 전통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의 언론 현상을 전통 사회로까지 소급하여 규정하는 외래적 전통주의 입장이다. 언론을 제4부나 감시견으로 규정하되 근대 신문의 양식 등으로 전제하고 한국의 과거 역사나 문화 생활 속으로 소급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조선의 조보를 최초의 신문으로 보는 입장이나 대간의 언론 양식을 그대로 서양적 제4부 또는 감시견의 시각으로 유추하여 언론으로 규정한다.

서양적 언론관에 맞추어 우리의 왕조 시대로부터 언론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시도가 특징이다. 이러한 전개에는 외래적 모더니즘 경우처럼 언론의 규정 준거를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왕조 시대부터 연원하고 있음을 밝힌다. 외래적 전통주의 특성은 서양의 언론관에 준하여 한국의 사회 문화적 현상에서 언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보학, 역사학 등 어떤 입장에서든 체계적 계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는 토착적인 언어의 생태성에 맞추어 개념이 구성하는 의미의 함축성이 사회문화의 생태에 따라 변상(變相: transformation)해온 한 과정에 외래적 제도 특성을 수용하여 정착해 가는 것으로 보는 토착적 전통주의의 입장이다. 서양으로부터 언론 사상과 양식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언론이라는 말이 양식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생명체로 있어 왔고 그 생태 위에 서양의 언론 사상과 양식이 도입되면서 한국적 변상 과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접근하는 시도이다.

세가지 관점을 대비시켜 보면 외래적 모더니즘이나 외래적 전통주의가 언론의 전통 기원을 서양적 범주에 두어 구조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한국적 전통을 서양의 준거에 착안한 나머지 한국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의 근대 언론 정립에 서양적 사회 문화 사상과 이론을 도입하고 선진화에 언론의 역할을 설정하고 시도한 노력은 인정한다. 반면에 한

국적 생태 현상의 토착적 기반을 전혀 또는 상당 부분 인정하기 않거나 과소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토착적 전통주의는 한국의 고유한 토착성을 배경으로 한 외래 사상의 접합 변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적 언론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토착적 전통주의는 충분한 실증적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생태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자료가 쉽게 발견되지 못할 때 의미의 관독과 계보화의 한계가 초래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 언론관은 토착적 전통주의의 입장에 착안한다. 우리 사회에는 토착적으로 언론이라는 말이 있어왔고 일본을 경유하여 새로운 언론 사상이 유입되어 결합하면서 근대 언론으로 된다는 생태 구성에 따른 계보론의 입장이다. 이 입장은 서구지향적 언론관에 빠진 절대 다수의 연구자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띤 반박인 동시에 전제한 한국적 언론 현상의 과소한 평가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적 생태 구성 특성을 그대로 살린 전통을 복구하자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적 사회 문화 생태에 맞추어 이미 “한국언론계보론”에서 전개한 바 있다 (박기성, 2000).

IV. 한국 언론관의 형성과 계보

○ 한국 언론의 원형과 계보

언어의 생태에 따른 사회문화적 구성 현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한국 사회의 언론은 근대 신문과 잡지 등이 출현하는 개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왕조 시대로 소급한다. 왕조 시대의 대간제도와 같은 현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 언론으로 명명해온 사회 문화적 현상을 필자는 원형으로 설정한다.

한국 언론의 원형은 필자가 착안한 생태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한자어 “言論” 활용이 이루어진 전통 사회로 소급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적 언론(speech)과 비교해 보면 유사성과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말의 의미 포섭성과 사회문화적 존재 양식이 다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한국적 고유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양자 모두 인간의 언어적 표현을 규정한 말이라는 점에 공통성을 가진다. 이러한 토착적 언론 개념은 개화기를 지나 일제하에서도 활용된다. 서양의 speech 중심 언론관과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관이 혼합을 이루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해방후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구어 언론인 speech 중심 언론관 전통이 점차 희석되고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관이 보다 주도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서양으로부터 전래되어온 외래 어휘와 대비시켜 보면 언론이라는 말이 대중매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남발되고 포괄적으로 되어버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speech, discussion, press, journalism,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 newspaper, broadcasting 등이 거의 모두 언론으로 번역되어 통용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편향성은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언론 기능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 내지 신화화가 빚어낸 결과임에 틀림없다.

한국 언론 철학의 설정과 언론 계보화 가능성은 전통 사회에 있어온 한문 문헌, 개화기의 문헌 자료를 접하면서 착상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초 시도는 이미 <한국 개화기 언론의 이원적 계보